열일곱 청춘열차 16일간의 꿈나눔,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다

전남도교육청 독서토론열차학교 학생들이 지난 8월1일 러시아 우스리스크 인근 발해 솔빈부(지방행정기관) 옛 성터에서 광활한 대자연을 보며 한민족의 기상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우철 해남공고 교사 제공〉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유라시아 대장정

⑩ 대장정을 마치며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학교 동행 취재

83개 고교 84명, 책 24권 출간

진로 고민 등 '나만의 이야기' 엮어

사진·동영상·음악 등 장르 다양

전남도교육청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들은 내일(10월23일) 졸업한다. 4월 전남지역 일반고 83개교 1학년 84명이 입학했다. 3차례 사전 캠프를 거쳐 15박16일의 시베리아 횡단 대장정에 올랐다. 그리고 사후 캠프와 책 출간을 끝으로 이날 졸업을 한다. 7개월간의 대장정이었다.

열차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맞다. 특혜다.

열일곱의 나이에 평생을 두고 경험하기 쉽지 않은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한데다, 전남 22개 시군에 아우른 폭넓은 교우관계, 교사당 학생수 8명의 소수정예 독서교육, 16일간 부대끼며 나눈 인생상담과 진로상담,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책 출간.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특혜다. 하지만, 이것은 전남교육의 큰 자산이다. 그래서 또 특혜가 아니다. 투자인 것이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채워가면 된다.

열차학교의 목표는 '책 출간'이었다. '나만의 책'을 내기 위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사색했다.

이들이 만든 책 제목은 이렇다.

▲짧은 단어 긴 생각! 꿈 ▲내리실 공항은 최종 도착지 꿈입니다 ▲시와 꿈이 만나다 ▲꽃목걸이 같은 너라고 ▲같은 공부 다른 느낌 ▲대한민국 교집합 러시아 ▲엉터리 의사들과 러시아 음식 ▲교육의 희망을 찾아 시베리아에 가다 ▲우주와 인간 ▲통일 향한 유라시아 대장정 ▲러시아를 품다 ▲러시아에서 한국을 보다 ▲열일곱 러시아의 본새를 알다 ▲우리가 고민하는 날들 ▲푸르색 작은 편지 ▲쓰바시바 9288 과학에 생각을 더하다 ▲러시아 탐방기 ▲호기심 열차, 과학을 가로지르다 ▲러시아에서 날아온 웃음들 ▲책 쓰기입니다 ▲I-Brand 소논문 쓰기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전남교육의 꿈. 총 24권이다. 이들은 열일곱 청춘의 꿈과 시베리아 횡단 여행의 감흥을 시로, 소설로, 시나리오로, 소논문으로 살려냈다. 또 재능을 살려 사진, 동영상, 주제가 작사·작곡 등으로 열차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열차학교 내내 차 멀미로 고생했던 순천강남여고 변희수 양은 "'I-Brand 책쓰기'는 가슴을 뛰게 했다.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글쓰기 소원을 이뤘다"며 "특히 부모님, 열차학교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며 꿈인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 생각을 다듬었고 소설에 담았다"고 말했다.

열차학교를 총괄한 박석주 전남도교육청 장학관은 "학생들은 서툴지만 직접 창작물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솔교사 감상기

"좁은 기차 불편함 속 공감·소통·치유의 완주"

독서토론 열차학교 박종현 교사(장성중)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학생들의 꿈찾기 강연을 하고 있다.

네것 내것 경계 허물고 친절과 배려

마음속 이야기 꺼내놓고 아픔 공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수없이 많은 젊은 날들을 허비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도 내 삶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독서였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교사였다. 모범생도 아니었고 공부도 못했던 내가 국어교사가 되어 있는 지금의 결과도 결국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읽었던 책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 거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다.

몇 년간을 쉴 새 없이 독서토론수업에 대한 열의로 뛰어다녔고, 그 인연으로 독서토론열차학교라는 장대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의 느낌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지르는 열차와 그 열차 안에서 며칠이고 앉아서 책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열차 내에서는 토론과 I-Brand글쓰기가 주된 활동이었다. 우리 반 학생들의 글쓰기 주제는 '공감과 치유'였다. 자신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물리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경험과 이것을 다른 이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치유한 것을 쓰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것이긴 했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독서토론열차학교를 '이야기 장터'였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휴대전화도 되지 않고 씻고 자는 것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좁은 열차 안에서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기 것에 집착을 보이고 네것 내것을 따지던 아이가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또 다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친절과 배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밝은 모습만 보이던 아이의 상처와 현재 진행형인 아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했고 심지어는 열차학교가 끝나갈 즈음에는 한 번도 손톱깎이를 써본 적이 없다던 아이의 손톱이 온전하게 자라는 모양까지 볼 수 있었다.

열차학교의 유라시아 대장정은 8월15일에 끝났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 동안 잠에서 깰 때면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열차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걸까하는 엉뚱한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요즘에야 독서토론열차학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독서토론열차학교를 탔던 아이들의 독서토론 능력이 월등하게 신장되었을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달마다 치러야하는 모의고사 준비에 온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며 경쟁과 결과 중심적인 학교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제 모습을 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많이 달라져있다. 교사가 되어 10년 남짓, 나는 너무나 빨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 좁은 열차 안에서 보여줬던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진작 열차에서 내렸지만 나는 그 안에서 느꼈던 공감과 소통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믿는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기억들과 행복감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리고 언젠가 괴롭고 힘든 현실 앞에 좌절감을 느낄 때 그 날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독서토론열차학교는 공감과 소통, 치유라는 가치 앞에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 아닐까? ▲박종현〈독서토론열차학교 드바(2)반 담임·장성중 교사〉